

박상우 장관, “이전 공공기관 지역혁신성장 위해 함께 된다”

- 25일 경남혁신도시 내 복합문화도서관 기공식 -
- 도시재생 통해 폐조선소를 성장거점으로 탈바꿈 -

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5일(목) 경남혁신도시(진주) 복합문화도서관 기공식에 참석하였다.
 - 박 장관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을 격려하고, 이전공공기관이 지역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앵커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 -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은 이전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주민들이 희망하는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, 경상남도·경상남도교육청·진주시와 추진한 사업으로, 지역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.
 - 국토교통부는 복합문화도서관과 같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협력사업이 타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박 장관은 “지역불균형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물려주기 위한,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”이라고 강조하며,
 - “이전공공기관은 지역의 일원으로서 지역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가지고,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면서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- 기공식에 앞서 박 장관은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는 K-기업가정신센터를 방문하였다.
 -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진주시 등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,

- “K-기업가정신센터는 이전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하여 스타트업과 차세대 기업을 육성하는 선도적 모델로 의미 있는 협업사례” 라면서, K-기업가 정신이 미래세대로 계승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.
 - 또한, LH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갖고,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된 정책과제의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.
 - 박 장관은 “주택공급 등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, 건설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LH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” 면서,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을 당부하였다.
-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통영 폐조선소 재생 복합단지 현장에 들러 시행자 (LH)를 만나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.
- 통영 폐조선소 재생 복합단지 사업은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, 세계적 해양 관광 문화복합단지로 개발하여 쇠퇴한 조선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이다.
 - 박상우 장관은 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통영 폐조선소가 세계적인 문화관광단지로 거듭남으로써,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의 롤모델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2024. 4. 25.

국토교통부 대변인